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날마다 첫 경험

첫 경험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 흔히들 사춘기를 넘길 무렵 이성(異性)간의 만남 등으로 받아들여 얼굴을 붉힐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매일 매 순간의 일들이 첫 경험으로 다가온다. 밥 먹고 배설하며 책 읽고 일하는 것들이 모두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수히 많아도 오늘만의 오늘은 오로지 지금의 오늘 뿐이기 때문이다. 하루 세끼의 밥 먹는 일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 이 순간의 끼니가 특별하며 유일하며 첫 경험의 식사가 되기 때문이다.

천 번, 만 번의 식사도 같은 식사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밥도 반찬도 분위기도 제 각각 다를 것이며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다른 식사이기 때문에 첫 경험의 식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친구와의 만남도 헤어짐도 같은 만남과 헤어짐이 되는 것이다. 한 순간도 같은 순간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다.

다시오면 외상 가능 합니까?"

그러자 식당 주인은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자고나면 다시 오늘입니다."

그렇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뿐인 것이다. 영원한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만남도 헤어짐도 설렘도 오늘만의 첫 경험이요 팍팍하고 지루한 권태로움도 오늘만의 첫 경험인 것이다.

천 번, 만 번을 식사해도 똑같은 식사는 있을 수 없듯 희망과 절망도 첫 경험임을 알아야한다. 흐르는 강물에서 목욕할 경우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감으로 같은 강물로 목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사람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헤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내 자신도 순간과 찰라 지간에 인체 공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 변모해 같은 모습의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듯 생체 변화의 생멸(生滅)의 윤회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같은 시간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장소 또한 자연의 변화 법칙에 의해 같은 장소는 이미 변화해 달라져 있는 것이다.

만남 · 설렘 · 헤어짐도 오늘의 경험
모양 치우침 없어야 지혜로운 삶

닮은꼴의 얼추 비슷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솔찬히 색깔과 무게에 있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움큼의 솔잎을 쥐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같으나 같지 않고 길이와 색깔, 두께와 부피가 천 가지 만 가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하듯 일생에 하루의 오늘은 무수히 많으나 오늘의 오늘은 오늘 뿐인 것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인 것이다. 하여, 백년을 살아도 어제와 내일은 영원히 없고 오늘의 오늘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오늘의 종교로 부르며 깊고 높은 철학적 과학성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한 차례 인용했던 짧은 이야기 하나 다시 옮겨 와야겠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어느 노 교수가 자동차를 몰고 강원도 어느 해변에 이르러 식사할 식당을 찾다가 어느 식당의 출입문에 붙어있는 재미있는 글귀를 만나게 된다. '오늘은 현찰입니다. 내일은 외상이 가능합니다.' 노 교수는 식사를 끝내고 밥값을 계산하며 식당 주인한테 말한다.

"오늘은 현찰내고 식사했는데 내일

그러므로 닮은꼴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생각의 모순된 착각 속에서 생사(生死)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그대로 생사윤회(生死輪廻)이며 머묾 없는 머묾, 모양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움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다.

〈육조단경〉의 핵심사상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이다. 생각에 끄달리거나 집착않는 무념(無念)과 모양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무상(無相)과 머묾 없는 머묾의 무주(無住)를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 경험이 소중하듯 닫힌 문 열고 보면 날마다 좋은날의 첫 경험인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의 첫 경험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소설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너와 나, 우리인 것이다. 작은 일에도 소소한 인연에도 선입견을 앞세워 다투거나 멀리하지 말 일이다.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 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날마다 새로운 첫 경험으로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살 일이다.

대중에 게으름으로 비친 '현묘함'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당(唐)나라 명찬(明瓚) 스님은 동양의 디오게네스였다고 불린 스님이다. 생몰연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숭산보적(嵩山普寂:651~739)의 법을 이은 제자였다고 한다.

그는 남다른 점이 많아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한다. 형악(衡嶽)에 살 때 스님은 무척 게을러 대중들이 운력을 할 때도 참여하지 않고 공양도 시간을 맞춰하지 않는 등 괴각(乖角)을 부렸다. 스님은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언제나 외톨이처럼 지내며 밥도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모아 먹었다. 이런 명찬 스님의 게으른 습성을 두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 나잔(懶殘) 혹은 나찬(懶瓚)으로 불렀다. 대중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즐겨 챙겨 먹었으며 그를 꾸짖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여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가끔 그가 내뱉는 한 마디 말을 듣고 대중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모두 법에 부합되는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송고승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20여 년을 머물던 남악사(南嶽寺)에 상국(相國)인 업공(嶪公) 이비(李泌)가 최이(崔李)의 모함으로 절에 와 피신하여 지내고 있었다. 이비가 명찬 스님의 행동을 몰래 살펴본 끝에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밤중에 몰래 명찬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명찬 스님이 이비에게 "쓸데없는 말을 삼가시오. 그러면 10년 후 재상의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고 했다.

이비가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고 물러났는데 그 후에 예언했던 대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벽암록〉에는 '나찬외우(懶瓚嵎芋)'라는 말이 나온다. 34칙에 수록된 내용으로 외우(嵎芋)는 토란을 구웠다는 말이다. 나찬 스님이 형산의 석실에 은거하고 있을 때 당나라 덕종(德宗)이 스님의 법력이 매우 높다는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내 모셔와 궁중으로 맞이해 국사로 모시려고 했다. 사신이 나찬 스님이 머무는 석실에 이르러 "천자께서 명령을 내렸으니 존자께서는 마땅히 일어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시오"라고 하였다. 나찬 스님은 소똥불에 토란을 구워 그것을 뒤져 찾아 먹느라 입가가 시커멓고 코눈물을 턱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신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답이 없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신이 웃으면서 "스님 콧물이나 좀 닦으시지요"라고 했다. 그때 나찬 스님은 "내가 공부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속인을 위하여 콧물을 닦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사신이 "행장을 꾸리는데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오"라고 했더니 나찬은 "그러시오. 조금만 비켜 서 주시오.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오"라고 했다.

이 말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인도로 원정을 가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했던 말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을 나찬 스님이 사신에게 했다고 하여 후대 사람들이 동양의 디오게네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나찬 스님은 끝내 일어나 왕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신이 돌아가 정황을 아뢰자 덕종은 더욱 스님을 흠모하게 되었다. 세속을 초탈한 고매한 풍모를 지녔던 나찬 스님의 일화다.

'명찬일언(明瓚一言)'이라고 제시된 공안도 있다.

나찬 화상이 "나에게 한 마디 말이 있는데 생각이 끊어지고 대상에 대한 분별도 잊어져 교묘한 말솜씨로 표현하지 못한다. 단지 마음으로 전하고자 할 뿐이다"고 한 말의 핵심을 집어 원오 스님이 말한다.

"이 노장은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물을 흐려놓는 것과 같으니 허물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 중에 대상에 대한 분별을 잊고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말해 보라.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만약 그 뜻을 알아차린다면 이미 모두 전한 것이며,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마음은 그만 두고라도 필경 어떤 것이 '한 마디 말'인가? 방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원오 어록〉에 나오는 말이다. 한 마디 말이 결국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로 공안의 핵심이 된 것이다.

〈선문염송설화〉에는 "장산찬원(蔣山贊元)이 법좌에 올라 잠시 침묵을 하다가 말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면 당나귀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설화〉의 설명에는 "말에 현묘한 도리를 담고 있더라도 진리로 통하는 길은 없으며, 입으로 말하더라도 진리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보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㉓ 존중정교분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 四句偈等 當知此處 一切世間 天人 阿修羅 皆應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게등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
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是人 成就最上第一希有
공양 여불탑묘. 하황유인 진능수지독송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최상제일희유
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卽爲有佛 若尊重弟子
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즉위유불 약존중제자

"또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사구게만이라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는 것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한 것이니,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되고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되느니라."

하늘, 사람, 아수라가 있는 일체 세간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천(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28천에 나뉘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색계의 중생은 5온인 색, 수, 상, 행, 식이 공한 것을 깨닫고 반야바라밀의 바른 뜻을 알아서 이를 남에게 일러 주므로, 욕계, 색계에 있는 천상, 사람, 아수라, 팔부신중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공양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구게 만을 일러 주어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마음으로 행한다면 애써 말을 하여 무엇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지니고 독송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5온이 공하여 일체법이 아니고 일체법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법이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부처이므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마음인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 것입니다.

우주는 티끌 같은 이름이 쌓인 것입니다. 그 구성요소는 흙, 물, 불, 공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 이름들은 탄소, 수소, 산소라는 이름이 있으며, 이 원소의 이름에는 전자, 원자핵, 중성자라는 원자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원자의 이름에는 쿼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쿼크는 힉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힉스는 지금까지 다른 이름을 찾지 못하여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물리학이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름입니다.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어느 것도 실재하지 않는 그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라는 이름은 마음의 별명으로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인 부처를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강경〉을 지니고 독송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5온이 공하여 일체법이 아니고 일체법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법이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부처이므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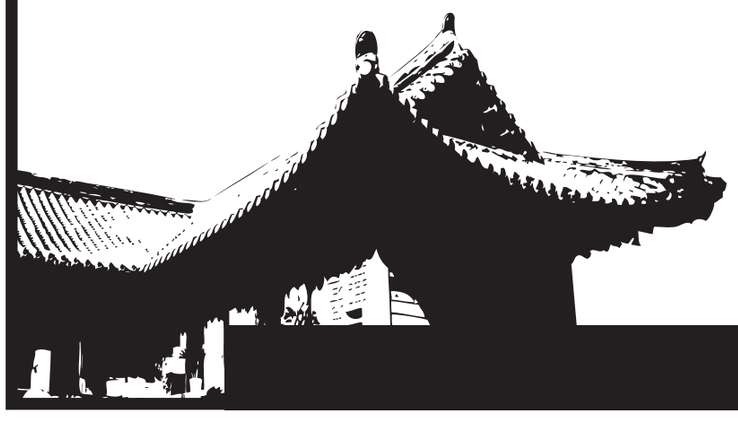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